

〈제 580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덕분에 챌린지’ 참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국민 참여형 응원 캠페인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수어를 통해 존경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함으로써 캠페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은 7일, 본점에서 수어 동작을 취하고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며 대한민국 의료진들에 대한 임직원들의 감사함을 표현했다.

금호타이어

◆ 2020년 핑크박스 지원사업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명 ‘소녀들의 소원 상자’라 불리는 핑크박스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가 3년째 참가하고 있는 핑크박스 지원사업은 서울 지역 저소득층 소녀(10~19세)들을 대상으로 일반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생리대, 속옷 등의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캠페인으로, 금호타이어가

준비한 핑크박스는 서울 금천구 및 종로구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약 90명에게 전달됐다.

해양에너지

◆ 창립 38주년 기념행사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8일 회사 대강당에서 창립 38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장기 근속사원과 조직가치실천 우수 사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2부 행사에서는 몸풀기 빙고게임, 족구, 축구 등 체육행사를 통해 임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형순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지난 38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 공급하여 도시가스 시대를 개척하고 성장을 이루어 왔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모두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과 지역 사회와 협력으로 기존 도시가스사업을 지속 성장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입회원

◆ (주)디에스팩



디에스팩(대표이사 김선광, 김금탑)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소량 다품종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6년 최신기술이 접목된 코멕시(COMEXI)사의 오프셋 8도 인쇄기, 무용제 사용 드라이 합지기 및 내부 공기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없는 식품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사 내부에 디자인 부서 및 인쇄판 제작 설비를 보유하여

접수에서 생산까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시아 최초로 설치한 당사의 오프셋 인쇄기는 그라비아기계에서 인쇄되는 다양한 재질의 OPP, PET 등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잉크는 일렉트론 빔 경화잉크(Electron Beam curing Ink - 일명 이빔잉크)로 냄새가 없으며 식품용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FDA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잉크이다.

1985년 설립된 대성포장산업의 가족회사로 그라비아인쇄 식품포장재 제조의 풍부한 기술력과 제조 비결을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식품용 포장재 및 소량 다품종 포장재를 제조하고 있다.

II. 광주경충 소식

〈제1483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5월8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연회장에서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을 초청 <GIST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란 주제로 제1483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광주과기원은 세계대학 평가에서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 세계 3위로 세계 우수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주인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또한 융합을 위한 기본을 잘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GIST를 지역민들에게 개방해 '우리 지역의 우리 학교'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리더를 양성해야 할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았다. 과학기술 중심 미래 사회를 위한 국가적 대학교육 모델로서 GIST 대학을 재정립해 국내·외에 확산할 예정이다. 그 핵심전략으로 첫 번째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기반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융합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일자리 사회문제 해결역할로, 교육혁신 분야에서 기술창업형 글로벌 과학기술대학 모델을 정립하고 연구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통·포용·배려하는 열린 경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권경영 및 윤리적 탈권위의 수평적 교육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 모두를 위한 소통경영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사무국 일지(5. 4 ~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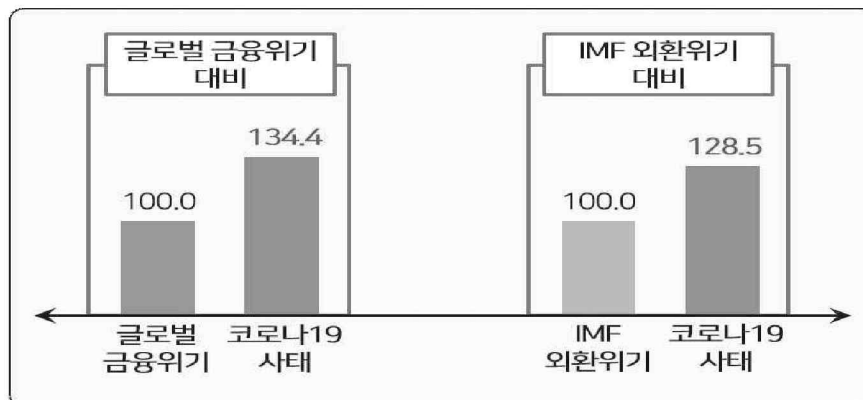
5. 4 (월)	● 전남지노위 심판회의	5. 8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83회 금요조찬포럼 ● 역대 회장 초청 오찬 간담회 ● 오택캐리어 신임 송용민 대표 예방
-------------	--------------	-------------	--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223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30% 정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경제위기별 충격 체감도]** 우리나라가 겪은 3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의 충격 체감도(평균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04.6, 코로나19 사태는 134.4로 집계되었다. 즉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34.4%, IMF 외환위기보다는 28.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평가

<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 체감도(평균치) >



- **(충격 체감도 구간 분포)** IMF 외환위기 대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체감도 분포는 'IMF 외환위기 충격에 비해 코로나19 충격이 더 크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IMF 외환위기 충격보다 코로나19 충격이 작다' 35.6%, 'IMF 외환위기 충격과 코로나19 충격이 비슷하다' 22.1% 순으로 집계

※ 올해 1분기 성장률, 연간 성장률 전망치 등 단순 경제 지표(전망치 포함)로는 외환위기보다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IMF 외환위기보다 클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금번 위기가 실물경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전개될 위기의 폭과 강도를 예단하기 어려워 위기 심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② **[2020년 연간 실적 전망]**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2/3 이상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고 응답했다.

- 올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는 응답은 72.4%,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는 응답은 70.6%로 나타났다.
-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올해 실적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되었다.

※ 기업 규모별 '20년 연간 실적(매출액·영업이익) '20% 이상 감소' 전망 응답(%)

[매출액] 300인 미만 기업 81.8 vs 300인 이상 기업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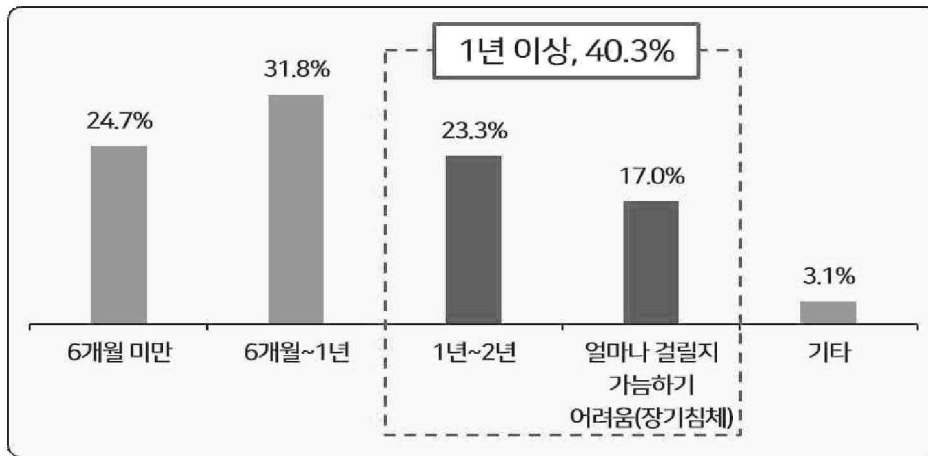
[영업이익] 300인 미만 기업 79.8 vs 300인 이상 기업 56.3

③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영여건 회복 소요기간]** 응답 기업의 40.3%*가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답변했다. 특히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장기침체)'는 응답이 17.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경충은 "코로나19 위기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1~2년' 23.3% +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움(장기침체)' 17.0%

※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32.2%)보다 300인 미만 기업(45.6%)에서 높게 나타남.

<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



④ **[신규채용, 신규투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26.5%가 ‘신규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2.4%는 ‘신규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⑤ **[개선해야 할 노동관련 법·제도]** 응답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개선’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라고 답변 (37.8%)했다.

※ 그 외에는 ‘해고 요건 개선’ 18.9%,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14.9%, ‘기간제·파견 등 규제 개선’ 9.0%, ‘기타(없음 등)’ 19.4%로 나타남.

1. 노사 동향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대책에 집중

○ 고용부는 5. 4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회의에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4. 22 발표) 추진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 표명
 - 고용부는 4. 27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항공지상조업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정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 시행
- 또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수형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빠른 시일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9,400억원 국무회의 통과(5. 4)

[참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직자 고용유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추가 지정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 무급휴직 실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 ▲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자,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93만명 대상 3개월간 월 50만원 한도 지원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대상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진 ▲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공익목적 지역 일자리 확대 ▲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Ⅳ. 노사 및 판례동향

실업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구직급여를 3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

■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 고용부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계획 발표(5. 6)

-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개소에 대해 5. 7 ~ 6. 5(5주간) 실시 예정

- 공정률이 50% 이상 진행된 건설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5월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공정률 50% 미만 건설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근로감독 실시 예정
-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이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

- 고용부는 금번 근로감독에서 통풍·환기 시설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조치뿐만 아니라 도급(원청)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

[참고] 고용부 건설현장 근로감독 주요 점검 사항

구분	주요 내용
화재·폭발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존재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 위험물이 있어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이나 아크 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 등 사용금지 -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 가연성 물질이 있거나 쉽게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하는 경우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Ⅳ. 노사 및 판례동향

도급인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폭발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및 수급인과 혼재 작업 시 작업공정 조정 등 협의 -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조치 -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화재·폭발 및 발파작업 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등
---------	--

■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 일체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

○ 한국노총은 4. 29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 참여와 관련된 논의 진행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조합원들의 고용, 소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

- 「중앙집행위원회」에서 3가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집행부에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결정

※ 3가지 방안 : ① 경사노위 內 논의, ② 6+2 노사정대표자회의(노2·사2·정2 + 경사노위 + 일자리위), ③ 노사민정대책회의(노사정 대표자 + 시민·종교단체 등 참여 주체 확대, 참여범위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결정)

2. 판례 동향

회사의 종업원 등이 노조법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 등 이외에 그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토록 한 노조법 제94조(양벌규정)는 위헌임 (헌재 2020.4.23. 선고, 2019헌가25 판결).

1. 사실관계

-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중 대표이사 겸 관리인과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 위반을 이유로 기소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
1. 노조 가입·조직 및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노조를 가입·조직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단체행위 참가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위 법인은 재판 계속 중 양벌규정인 노조법 제9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 9. 4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판결요지

- ①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음.
- 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됨.
-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됨.

②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도 종업원 관련 부분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자가 일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법인에게도 대표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대표자의 행위는 종업원 등의 행위와 달리 봐야함.
- 법인은 기관을 통해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시사점

-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시 법인의 면책 사유 없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함.
-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판단함.

Ⅳ. 노사 및 판례동향

- 또한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행위는 제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당 노동행위 양벌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법인의 대표자 행위 : 양벌규정 적용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행위 : 위반행위를
·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 양벌규정 적용 X